

대정화금, 코스닥 상장 예비심 청구

시약 및 원료 의약품 생산기업 대정화금이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대정화금의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5월28일 발표했다.

대정화금은 시약과 원료 의약품을 주로 만드는 기초화학물질 제조기업이다.

또한 다양한 복합금속산화물을 자체 특허기술로 제조하고 있으며 특히, 리튬 2차전지 양극재 원료 및 연료 전지 전해질, 태양전지 소재, 분리막 소재 등도 공급하고 있다.

대정화금은 2009년 매출액 372억원, 순이익 49억원을 기록했다. 공모 예정가는 주당 8820-9920원, 공모 예정 금액은 203억-228억원이며, 상장 주관사는 HMC투자증권이다.

<화학저널 2010/05/28>